

남도일보



지난해 열린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하고 있다.

/조오련배땅끝바다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제공

제4회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 해남서 27일 개막

송호해변서 10km·3.3km 개인·1.2km 단체전 진행
부대행사 다양...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도 열려

한반도 최남단 해변서 바다수영
대회가 열린다.

조오련배땅끝바다수영대회 조
직위원회(위원장 김재욱·이하 조
직위원회)는 27일부터 28일까지
전남 해남군 땅끝 송호해변에서
제4회 조오련배 땅끝바다수영대
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땅끝바다수영대회 지난 2009년
8월 타계한 '아시아의 물개' 고 조
오련을 추모하기 위해 2010년 처
음 시작됐다.

이번 대회에서는 10km, 3.3km,
500m 개인전과 1.2km 단체 릴레

이 종목으로 중·고등부·일반부
(연령대별) 남녀로 각각 진행된다.

또한 조등부가 폐지되고 대한수
영연맹의 지원을 받아 국제수영연
맹 공식인증대회로 승격시키기 위
해 조직위원회는 발벗고 나서고
있다.

4회째로 열리면서 명실상부한
전국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
며 10km 올림픽코스 신청이 지난
해에 비해 80%정도 늘어난 것으
로 파악되고 있다.

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난해보
다 100여명이 늘어난 600여명의

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
있다.

조오련배땅끝바다수영대회 기
간 동안 제2회 전남도지사배 비치
발리볼 대회도 진행된다. 1회 대회
때는 47개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
여해 1천여명이 넘는 가족과 관광
객이 송호해변을 찾았다.

행사 당일인 27일 오후 7시에는
조오련배땅끝바다수영대회를 기
념해 땅끝 한여름밤의 해변축제가
열린다.

신명나는 음악과 농수특산물 특
판행사가 진행돼 해변을 찾은 선

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
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
다. 땅끝자연사 해양박물관도 첫
운영해 피서객들을 맞이한다.

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추억
을 위해 제1회 땅끝바다수영대회
사진 콘서트도 진행한다. 참가자
또는 가족들의 대회장면, 응원모
습 등을 순간 포착한 현장모습을
조직위원회 홈페이지(www.jocup.kr)에 올리면 다양한 상품을 제공
할 방침이다.

김재욱 조직위원장은 "조오련
의 끝없는 도전정신은 우리 국민

들에게 힘과 꿈을 심어주기에 충
분했다"며 "대회를 국제대회로 승
격시켜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
나가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해남에서 태어난 고 조오
련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
상하며 '아시아 물개'라는 애칭을
얻었다.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
당시 대한해협을 횡단하고 2008
년에는 3·1독립운동을 선언한
33인의 혼을 담아 독도를 33바퀴
회영하는 등 다양한 도전으로 국
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.

/신광호 기자 sgn@namdnews.com

남도투데이

무안군, 전라남도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

무안군은 내년에 개최되는 제53
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
개최를 위해 8만 군민의 지혜와 역
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.

무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 군
청 회의실에서 김철주 군수와 무안
군체육회 관계자, 군민 등 200여명
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전라남도
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
졌다.

무안군은 이날 발대식에서 조직
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
과, 위촉장 수여, 결의문 낭독, 체전
준비상황 프리젠테이션을 가졌으며
8만 군민을 대표하는 전남체전 조
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범 군민적 참
여로 최대의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
체전 개최를 다짐했다.

한편 이날 출범한 조직위원회는
김철주 군수를 조직위원장으로 하
고, 이윤석 국회의원, 고석규 목포대
학교 총장, 김병식 조당대학교총장,
임덕수 무안군의회회장을 고문으로
위촉하였으며, 부위원장에는 정길



수 무안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
8명, 자문위원은 36명, 추진위원은
92명 등 총 141명으로 구성했다.

무안군 관계자는 내년 개최되는
전남체전은 다시 한번 무안군의 위

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
히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8만
군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명품체전
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
다.